

시각장애인과 도서관



글 | 최 동 익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회장
한국도서관협회 이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cdi4488@nate.com

필자는 1981년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도서관을 거의 접해본 적이 없었다. 아마도 맹학교를 다닐 때 도서관실에서 점자책으로 수호지를 빌려보았던 것이 그때까지 필자가 아는 도서관의 전부였다. 그러기에 도서관이라

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부담감이나 부러움, 유익함이나 필요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동료들과 필자는 도서관을 통해 구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도서관은 책을 빌려보는 것 뿐만 아니라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사귀고 어울리기까지, 학교생활의 거의 전부나 다름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듯 대학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서관이지만, 시각장애를 지니고 있는 필자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별나라로 밖에는 인지되지 않았다. 눈이 보이지 않기에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는 책도 없었고, 또한 점자로 만들어져 있는 책은 그당시 전국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 열람실에 앉아서 볼 책조차 없었다.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필자에게 있어서 도서관은 그야말로 갈 수 없는 땅이었다.

이러한 도서관에 대한 실망이 환상으로 바뀐 것은 대학시절 미국과 영국에서 원서로 된 점자책과 녹음도서를 빌려보면서 부터였다. 영국의 왕립시각장애인협회(Royal National Institute of Blind People)는 점자책을, 미국의 녹음도서관(Recording for the Blind)은 녹음도서를, 전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별도의 운송료 없이 무료로 대출을 해주고 있었다.

이들 도서관으로부터 빌려보았던 책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필자에게 있어서 도서관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1988년 미국에 유학을 가서 시각장애인 관련 도서관 체계를 보면서 역시 선진국이라는 감탄을 하였다. 미국의 국회도서관 산하의 장애인을 위한 국가도서관 서비스(National Library Services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녹음 및 점자도서를 제작하고, 제작된 도서들이 전국 어

디에서나 공공도서관을 통해 빌려볼 수 있도록 하는 전국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대학 시절 책을 빌려보았던 RFB&D(Recording for the Blind


and Dyslexic)는 전국 70여개의 사무소를 통해 연간 수만권의 전문 녹음도서를 제작하면서 시각장애인 대학생 및 전문인들의 도서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고 있었다.

이러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체계의 완벽성을 꿈꾸면서 그 때로부터 20여년간을 살아온 지금 그러한 당시의 환상을 이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시각장애인복지관 내에 점역실을 만들어 개별적으로 학습에 필요한 대체자료를 무료로 제작해 주었고,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학습지원센터라는 조직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민간에서의 노력이 이처럼 이루어져 왔다면 공공분야에서의 노력은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시도되기 시작했다. 불과 3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많은 부분 부족하고 서투르지만, 그래도 공공분야에서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도서사업을 정부가 직접 나서게 되었다는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단지 하나의 센터에서 수행하기에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기에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원시절 주장했던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조속히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5만명에 이르는 시각장애인들은 일반 시장에서 책을 구입할 수 없다. 즉, 비장애인들의 독서문화는 시장 경제 속에서 출판사와 구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정부는 단지 정책적인 지원과 공공성의 확보를 추구하면 된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어야 한다면 독서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들 25만 모두는 공공성을 지닌 곳에서 대체자료를 만들어 주어야만 독서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는 단지 센터일 뿐이다. 시각장애인의 대체자료에 대한 정책, 대체자료를 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증 관리, 전국의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점자도서관들과의 협력에 의한 대체자료 제작, 독서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한글점자에 대한 연구 및 국가 표준 등, 수많은 장애인도서관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다.

시각장애인의 독서를 통한 자립과 재활이라는 것이 우선되어지는 기본적인 정보접근권 외에 독서문화 향유라는 장애인들의 독서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루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함을 독서소외계층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피력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 독서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들 25만 모두는 공공성을 지닌 곳에서 대체자료를 만들어 주어야만 독서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